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1-9)

영국의 C.L. Lewis는 시편 8편을 ‘짧고 절묘한 서정시’라고 했고, 시편 주석가 Derek Kidner는 ‘시편 8편을 능가할만한 시의 모형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인간의 존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역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가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시인은 제일 먼저 ‘여호와 우리 주여’ (1절) 라고 고백합니다.

1.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예찬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므로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서 과감하게 ‘하나님’ 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봉헌시에 한 기도 속에서 도 나타났습니다(와상 8:27).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2절).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특권입니다. 시편 8편은 신약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어린아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노하자 예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 21:16)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시편 8편과 동일시하므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인 인간의 본분입니다.

2.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달은 역사의 장구함을 보여주고 별은 하늘의 광대함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대자연을 바라보면 사람은 대관절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히말라야 산 밑에서 등반대원들은 인간의 왜소하고 미약함을 느끼며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 만세를 외치며 과학 만능을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슬방울이며 (호 13:3), 아침 안개와 같고(약 4:14), 밤의 한 경점과 같고(시 90:4), 한 점 티끌에 불과한 존재(시 90:3)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의 눈에는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3. 위를 볼 것인가 아래를 볼 것인가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점차 하나님처럼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인간의 특권과 의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인간이 오히려 짐승을 향하여 나가며 점차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

로마 카톨릭 신학의 대부격인 Thomas Aquinas는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 인간의 위치를 말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는 몸을 갖고 있으나 인간은 영과 육이 있어 이들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처럼 살 것인지, 이와 같이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점차 하나님처럼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인간의 특권과 의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인간이 오히려 짐승을 향하여 나가며 점차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떠들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여 결국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 들뜬에 나가 짐승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하고 더러운 흥내는 다 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차 그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며 동물과 동일성을 찾으면서 짐승처럼 사는 법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 주장대로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므로 짐승처럼 행동하기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짐승보다 더 나쁘게 되어 짐승이 꿈도 구지 못하는 행위를 버τεί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 (6절).

다스리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되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는 아직도 미래 사향으로 남아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히 2:8) 하신 말씀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히 2:7).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다스리는 권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 사명자 대회 준비 시작되다

10월9일(주) ~ 11월27일(주) 50일간

2005년 사명자대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였고 헌신과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 기도와 전도의 대회인 사명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명자로서 5대 기도제목을 갖고 특별새벽기도(11.14-26), 24시간 연속기도(101호), 다니엘 기도(오전 오후10시에 2분씩 드리는 열열이 기도) 그리고 제출된 기도제목으로 중보기도를 한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교인이 1인1명이상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전도를 하며 노방전도, 축호전도, 문서전도를 더욱 강화하여 잃은 양 찾기 운동을 벌이고, 우리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을 초청하는 Home Coming Day 행사도 갖는다.

더욱이 말씀으로 사모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모여 본문으로 정해진 '빌립보서'를 암송하는 성경암송대회(10월23일-예선, 10월28일-금요일 본선)도 열려 풍성한 사명자대회로 진행된다.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넘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조직

- 대회장: 이종운 목사
- 지도: 윤영국 목사
- 본부장: 윤찬오 장로
- 홍보분과-전기섭 장로
- 기도분과-김세재 장로
- 안내분과-박두영 장로
- 진행분과-이갑진 장로
- 전도분과-이영기 장로
- 교육분과-이완형 장로
- 재정분과-오정수 장로

- 기간: 10월9일(주)-11월27일(주) 50일간
- 주제: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벧전 2:9-12)
- 표어: 교회, 세상의 소망
- 사명자대회 새벽기도회: 11월14일(월)-26일(토) 새벽 :5:00-6:00(강사:이종운 목사)
- 주체찬송: 259장(빛의 사자들이여)

행동강령

1.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자.
2.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비전따라 전진하자.
3. 이웃의 동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 되자.

기도제목

1. 우리는 사명자로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얻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 우리는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3. 서울교회는 잃은 양을 찾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4.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서울교회 새예배당이 사명자들의 헌신으로 헌당되고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는 산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 혼돈과 위기에 처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성도된 우리는 모처럼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연휴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향을 향하는 성도들은 성경찬송과 함께 순례자를 가지고 가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한다.

9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9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를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9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3독: 이미송 집사(13교구)
- 2독: 서영애 권사(5교구)
- 1독: 이미연 권사(1교구) 이윤정 권사(2교구) 김남욱 집사(5교구) 이종형 집사(5교구) 최근자 권사(5교구) 김인식 권사(8교구) 정현숙 권사(10교구) 김규성 집사(10교구) 김선미 권사(11교구) 예완성 집사(11교구) 강민자 집사(13교구)

금주의 성구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걸음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딤후 4:13)

When you come, bring the cloak that I left with Carpus at Troas, and my scrolls, especially the parchments. (2 Timothy 4:13 [NIV])

교회, 추석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다

1. 2005엘린바자 수익의 십일조를 뉴올리언스 수애구호금으로 총회에 전달

9월12일 구제위원장 윤봉준 장로는 2005엘린 바자 수익의 십일조인 일천이백만 원을 교회를 대표하여 총회를 방문, 전달하였다.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는 우리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만든 성금을 큰 감사함으로 받으며 총회신하 개교회중 가장 먼저 서울교회가 성금을 전달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총회는 개교회들에서 성금이 도착하면 이를 모아 직접 뉴올리언스 현지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사용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2. 70세 이상 노인 가정 및 어려운 가정에 선물을 전하다

추석을 앞둔 지난 주 중에 과일 상자를 준비하여 70세 이상 되신 노인 가정에 교구담당교역자를 통해 전하며 담임목사인 이종운 목사의 인사를 함께 전하였다. 그리고 복된 추석이 되도록 심방예배를 드리고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였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 처한 36가정에 금일봉을 전하며 위로하였다.



3. 장애우 기관 2곳에 중추절 위로금 전달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장애우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부 교사들과 함께 장애우 기관 2곳(주몽재활원, 나자로의 집)을 방문하여 중추절 위로금을 전달하고 장애우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4. 디아스포라부도 사랑을...

복한을 탈출하여 고향이 더욱 그리운 디아스포라부원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여 추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도록 기도한다.



추석특집 기획-②

기독교인과 효(孝)

연재순서

- ① 기독교인과 제사
- ② 기독교인과 효(孝)



김재진 목사
(협동목사)

하나님의 율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론을 제기할 여지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무조건적 율법'을 법 apodiktisches Gesetz' 과, 다른 하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준수해야 하는 '경우의 율법' kazuistisches Gesetz' 이다. '무조건적 율법'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십계명이다. 따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제5계명은 '무조건적 율법'에 속한다. 그렇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왜 '무조건적 율법'에 속하는가?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부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부모님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있기 이전에 먼저 계셨듯이,

부모님도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듯이,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제1계명과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제5계명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속명적 과제이며, '무조건적 율법'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이나, 사회 윤리적 차원의 위법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신앙적 위법이다. 이런 점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는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율법'이다. 따라서 불효자식은 들에 맞아 죽어 마땅한 것이다(출 21:5,7).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인가? 부모를 '공경' 혹은 '경외하다'는 히브리어 '카베드 כבד'는 본래 '무겁다(be heavy, weighty)'란 뜻이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를 높이고尊崇, 무겁게重, 곧 존중尊重하라는 뜻이다. 즉,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창 22:2)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을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라 야라아'라'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카베드'כבד'의 동의어이다) 하는 줄 아노라."(창 22:12) 이러한 점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효' 개념은 단순히 인간적 친절, 곧 "거즉치기居居則致其敬하고, 양즉치기良養則致其樂하고, 병즉치기病則致其憂하고, 상즉치기喪則致其哀하고, 제즉치기祭祭則致其嚴"(명심보감明心寶鑑의 효행편孝行篇)이라는 유교의 '효'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효' 개념은 효행을 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축복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님 인터뷰 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



11월 27일 (주일) 헌당감사예배와 함께 파송될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2회 연재한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일부 이름은 기명으로, 사진은 실지 않는다. 이들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1. 카자흐스탄 / 이은준 선교사

이은준 선교사는 대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해오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됐다. 가족은 강혜정 사모와 슬하에 대학생인 큰딸(한나)과 고3인 둘째 딸(혜나), 그리고 현지에서 중학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아들(평화)이 있다.

이 선교사는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 활동 중 공산권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직장에 다니면서 기도중 선교의 강한 부르심을 받고 지난 2000년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진학했다. 올해 가을엔 목사안수를 앞두고 있다.

선교지인 카자흐스탄은 면적이 남한의 27배나 되는 큰 나라다. 1500만 명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자흐 민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도들이고 30% 정도가 러시아인으로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다. 현재 기독교도는 1% 정도에

불과하다. 이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따라즈>라는 마을로 갈 계획이다. 이곳은 수도인 알마티와 서쪽 도시 침첸트 사이에 있는 곳이다. 이 선교사는 현지 담사를 통해 예배당으로 쓸 300평 정도의 주택을 마련했고 현지 정부에 교회로 등록도 해놓았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법적으로 교회 등록을 허용하고 선교사에게 비자도 발급해주고 있으나 교회 밖의 전도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도들은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관리들도 은근히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도제목>

- 1500만 카자흐 백성 구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지도록
- 기도 동역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2. 동아시아 / 강아곱 선교사

대학시절 동아시아 관련 지역의 학문을 전공한 강아곱(가명) 선교사는 졸업이후에도 오랫동안 관련단체에 몸담으며 잡지를 발간하는 등 문서 선교에 헌신해오다가 지난 2001년부터 현지에 들어가 직접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가

족은 주한나 사모와 슬하에 11살 난 아들(산), 8살 난 딸(나루)이 있다.

강선교사가 가게 될 곳은 선교환경이 열악한 곳여서 현지인들을 전도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기도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강선교사는 기업체 직원 신분으로 현지에서 선교를 해오고 있으며, 향후로도 여행사 등 기업을 스스로 운영하거나 한국에서 현지로 들어가 기업을 하실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중이다. 비자문제도 지금까지는 현지 기업의 협조로 비자가 연장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돼 선교지에 영구히 정착해 지속적인 선교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제목>

- 두 자녀의 건강과 안전
- 선교와 현지사업의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 그동안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김민철(편집부)

나의 하나님

만일 내가

김광신 장로(12교구)

왕상 8:35-36 대하 6:26-27



만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세상살이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서 연약해 쌓이게 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내가 이른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기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깊이 도와주고 싶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가 내 속을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속제를 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밤마다 뒤척일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내 속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나 내가 귀먹고 눈멀고 입이 막혀 가슴까지 답답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역부족을 절감하여 쥐구멍을 찾을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양



식이 되고 모판이 되고 어머니의 모태가 되고 나룻배가 되고 꿀과 꿀송이가 되어야 함에도 최악의 지경까지 추락하게 되었을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모습의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축복인 것을 모르고 교만으로 꺾 차있을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내 교만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노래하고 춤추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높이지 못하여 전전공공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온몸이 찬양하고 춤추는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이 백지가 될 위협에 처하게 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하여 천국 문에서 쫓겨나게 될 위협에 처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기보다 높은 자리만 꿈꾸는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되었다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사랑의 헌혈실시

9월25일(주) 오전 10시 102호실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토록

서울교회 헌당감사 14대 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사랑의 헌혈은 다음 주일, 9월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2호 미스바홀에서 실시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수많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인에게 응급상황 시 수혈할 혈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결과를 초래한다.

교회는 이번 헌당을 앞두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바라고 있다.

16세 이상 65세미만의 성도중 만성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보유한 분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고 적십자사에서 헌혈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한다.



2001년 사랑의 헌혈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2일(목) 복음신앙동지회를 소집한다. 24일(토) 한국개혁신학 학술세미나 개최설교를 한다.
- 주간 식당 봉사: 당회원(9월18일) 스테반회(9월 25일)
- 금주의 식사: 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2005년 농어촌 100교회 자매교회(3)

- 교회명: 제자교회
- 교역자: 이준승 목사(여)
- 교인현황: 장년 9명, 청년2명, 중교1명, 아동 1명
- 기도제목:
 - 전도일꾼, 기도일꾼 세워지도록
 - 피아노 반주자 구하도록
 - 교회부흥을 위해
 - 탈출순중
- 교회주소: 대구시 수정구 시지동 265-8
- 후원자: 마리아여전도회, 신용식-김신영, 이승민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V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N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태선자 연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전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4. 대한민국의 경제성 회복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한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